

광양제철고 김영욱 홍명보號 승선

축구협, 프로선수 12명 등 수원컵 출전 대표팀 22명 확정

금칠에 들어가며 8월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이집트(8월4일), 일본(6일)과 차례로 수원컵 경기에 나선다.

◇U-20 대표팀 명단 ▲감독 = 홍명보 ▲코치 = 김태영 서정원 신의손 ▲골키퍼 =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수비수 = 김민우(연세대) 장석원(단국대) 김영권(전주대) 홍정호(조선대) 양준아(고려대) 정동호(요코하마) 오재석(경희대) ▲미드필더 = 김영욱(광양제철고) 구자철(제주) 최호정(관동대) 김원식(발랑시엔) 김의범(서울) 조영철(니가타) 박철호(라싱산탄데르) ▲공격수 = 서정진(전북) 최정한(오이타) 이승렬(서울) 김동섭(시미즈) 박희성(고려대) 김보경(충의대)

그러나 허정무 감독이 지휘하는 성인 대표팀의 주축인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은 발탁 대상에서 빠졌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파주 NFC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본격적인 담

/연합뉴스

'강진 베이스볼 파크' 25일 문 연다

국내 최고시설의 '강진베이스볼 파크' 가문을 연다.

20일 강진군은 도암면 학장리에 소재한 '강진베이스볼 파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황주홍 강진군수, 유영우 대한야구위원회(KBO) 총재, 하구연 야구해설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주 및 감독, 야구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강진베이스볼 파크'는 부지 163,952㎡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곳은 정규 야구장 4면과 실내 연습장 1동, 선수용 숙소와 호텔, 실내수영장, 팬션 등을 두루 갖춘 전천후 야구종합 타운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정규구장 4개면(중앙 120m·좌우 96m)과 실내연습장(길이 70m·폭 40m)시설을 마무리하고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된 것.

강진베이스볼 파크 정규구장(내야 인조구장 1면포함)은 사계절 경기를 할 수 있는 천연구장으로서 모두 한 장소에 조성되어 있다 특징을 갖고 있다.

실내연습장은 돔형 형태로 규모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조만간 정규구장 중앙에 관제탑을 설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야구해설가인 허구

을 올렸다.

국내 프로 선수들도 홍명보호에 대거 승

선했다.

지난해 K-리그 신인왕인 공격수 이승렬(FC서울)을 비롯해 서정진(전북)과 미드필더 구자철(제주), 김의범(서울), 골키퍼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도 청소년 대표팀 22명 명단에 포함됐다. 또 고교생으로는 유

일하게 미드필더 김영욱(광양제철고)이 대표팀 명단에 들었다.

그러나 허정무 감독이 지휘하는 성인 대

표팀의 주축인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은 발

탁 대상에서 빠졌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파주 NFC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본격적인 담

/연합뉴스



정규구장 4면에 돔형 실내연습장 등 갖춰

준공 기념 '청자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연 위원의 이름을 따서 내야 인조구장으로 만들어진 허구연 필드 명명식과 이춘광(현 요미우리 소속 이승엽 선수 부친)씨가 기증한 베이스파크 표지석 제막식도 함께 열린다.

또한 강진베이스볼파크 준공식 기념으로 25일부터 28일간 전국규모의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 16개 팀(전북, 충남, 충북, 광주, 제주, 경북, 인천, 경기, 전남 등) 350여명이 각 지역대표로 참가한다.

강진군은 이날 준공식을 계기로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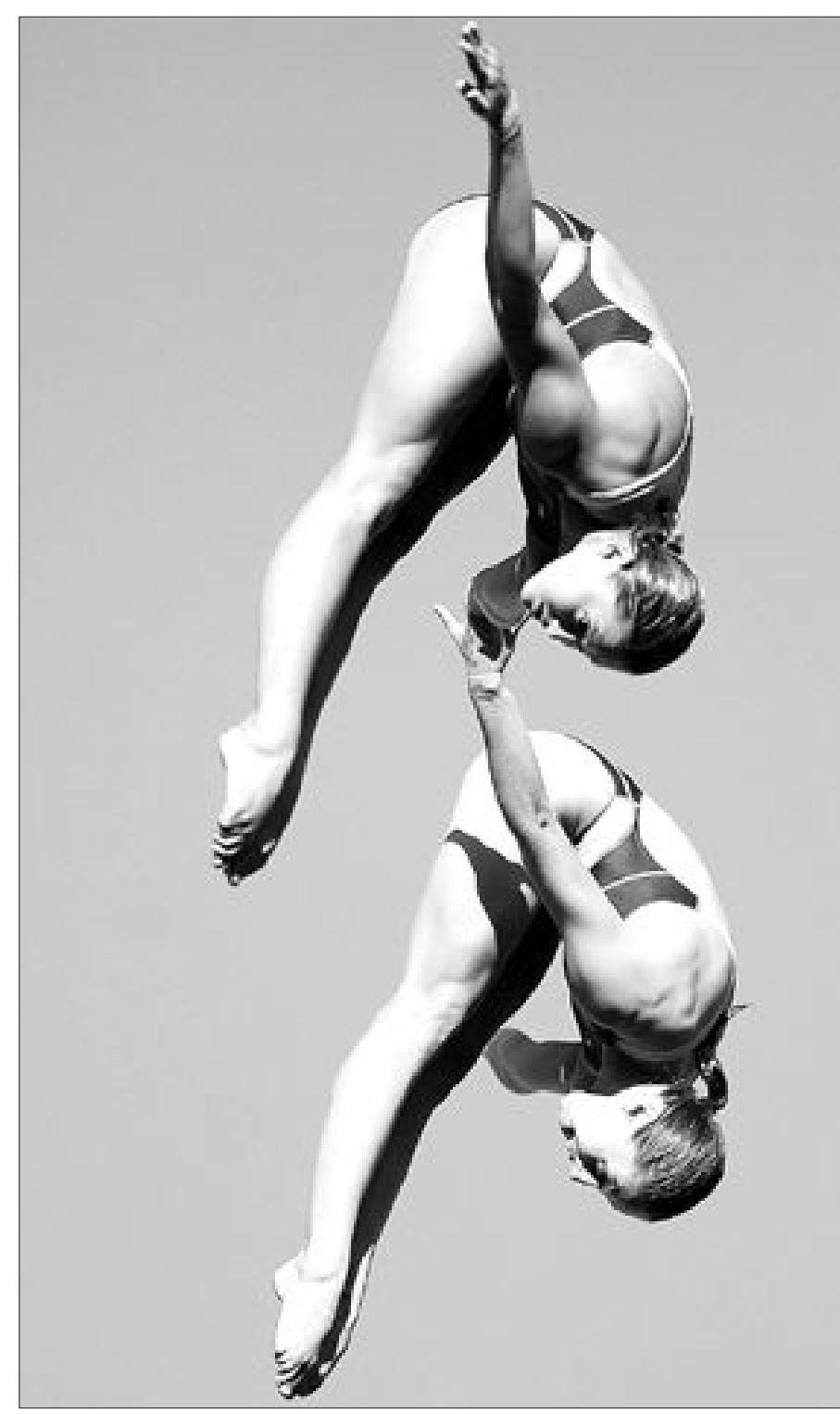
야구를 비롯해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의

동계훈련지는 물론 각종 전국규모의 야구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북경 올림픽 우승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준우승 이후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일고 있는 야구 붐에 맞춰 야구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강진베이스볼 파크는 기존 축구장 등 스포츠 관련 인프라와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들이어서 하나되어

호주 브리오니 콜과 메리사 우 선수가 20일 로마에서 열린 FINA 세계수영챔피언십 여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ダイ빙 결승에서 고난이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체고 1,600m 계주 '금빛 질주'

전국 중·고 육상…광주체고 2위

광주체육중 유태일 세단뛰기 금

전남체육고(이하 전남체고)가 태백산대 제7회 전국 중·고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빛질주를 펼쳤다.

광주체고는 20일 강원도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1천600m 계주에서 국가 대표 상비군인 김희정의 막판 대역전 질주에 힘입어 라이벌 광주체고와 충남체고를 제치고 금메달을 막보았다.

전남체고는 20일 강원도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1천600m 계주에서 국가 대표 상비군인 김희정의 막판 대역전 질주에 힘입어 라이벌 광주체고와 충남체고를 제치고 금메달을 막보았다.

여중부 세단뛰기에서 유태일(광주체육중)이 13m58을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 세단뛰기에서 유태일(광주체육중)